二、石佛坐像 및 其他

地藏殿內部에 奉安되어 있는 높이 一一〇cm의 石佛坐像 一軀는 口傳에 依하면 現 大雄殿(地藏殿) 後方(向在) 地下에 埋沒되었다가 約二十年前 暴雨로 地表에 露出 發掘된 것인데 移置할 때부터 座臺 및 光背石 等은 없었다 한다。

花崗石인 이 坐佛은 오랫동안 地下에 埋沒되어 있었음인지 破損된 部分이 없고 石色도 純白에 가깝다。剃髮의 比丘形으로 通肩이며 結跏趺座하였는데 左手에 寶珠를 얹고 右手는 무릎 위에 놓아 觸地印을 보인다。頭形이나 持物로 보아 尊名은 地藏菩薩로서 此寺 創建初의 造成으로 推定되는 바이다。

衣褶의 彫線이 纖弱하고 形式化된 것은 時代의 降下됨을 말하나 姿態의 端正함과 顏容 溫和함이 當代의 優品으로서 또 地藏像의 羅代遺品으로서 完存함은 多幸이다。

伽藍은 年代未詳이나 兵火로 燒失되었다고 口傳되고 있는데 그 遺址에는 羅代의 礎石 等이 많이 남아 있고 八瓣覆蓮臺石(八角石燈臺?) 一個도 發見되었다。建物로는 近代의 寮舍 二棟(瓦屋、草屋 各一棟)과 地藏殿 뿐인 바 地藏殿만은 그 年代와 樣式이 注目되었다。거의 廢寺에 이르러 老僧 一人이 居住하는데 人跡도 드문 이 곳에 남아 있는 塔像의 再調와 保存策을 當局에 期待하는 바이다。

(註) 東西 兩塔의 實測値(cm)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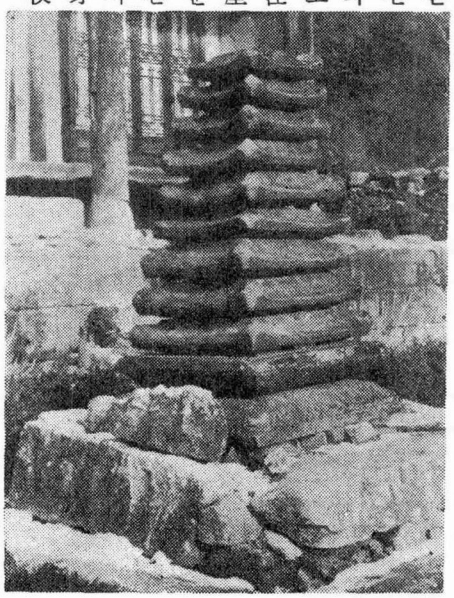
	下基甲石		上基臺石		上基甲石		初層屋身	
	一邊長	高	幅	一邊長	高	幅		
東塔	二二〇	七六	一五四	一七五	六二	六四		
西塔	二〇四	七六	一三五	一四七	五六	六四		

牙山 神心寺의 青石塔

鄭 明 鎬

高麗에 들어서 더욱 流行한 青石塔의 新例를 正初에 調査하였다。忠南 牙山郡 鹽峙面 山陽里①에 位置하는 神心寺(俗稱 생절)는 東國輿地勝覽 卷二十 牙山縣 佛宇條에 「在桐林山」이라 하였고 「梵宇攷」에도 보이는 古刹인 바 現在는 大雄殿과 寮舍一棟의 貧刹이다。

庭中 塔으로서 大雄殿 앞에 安置되어 있는 青石塔은 國內에 遺存하는 他例(金山寺、海印寺 願堂庵、法住寺 福泉庵、靈山의 法華庵②等)와 같이 塔身을 缺하였고 屋蓋만을 上下蓮花臺石上에 累積하였으며 相輪部는 喪失하였다。方形인데 地臺石으로 二段의 花崗石을 놓았고 그 위에 單瓣의 仰覆蓮花를 各各 二十四瓣을 彫刻한 單基壇의 上下臺石으로 中石을 缺하고 重疊되어 있다。塔身은 青石板石을 屋蓋上下에 홈을 파서 嵌入하였을 것으로 推定될 뿐이며 屋蓋石 또한 方形으로서 九層까지 남아 있다。屋蓋는 二段의 角形받침이 檐下에 있고 上面에는 一段의 塔身받침이 있으며 落水面은 平薄하며 四隅棟은 모를 깎어서 轉角의 突起를 減縮시키고 있어 그 手法이 注目되었다。最頂의 屋蓋上面은 平坦할 뿐 아무런 造形이 없는 바 他例에 있어서 上層함에 따라 塔身이 下層에서의 四枚



構成의 手法을 떠나 一石化하고 있음에서 미루어 더욱 層級이 增加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擦孔 等이 없이 相輪部가 安置된 것인지 再調되어야 할 것이다。 이 塔은 일찌기 倒壞 再建된 것으로 推定되는 바 그것은 各層屋蓋面에 人名 等이 陰刻되고 있음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 中 二層에는 「成曾發 字魯賢 號靈山 戊戌生 昌寧人 崇禎二百三年 庚寅三月日」(朝鮮 純祖 三十年 西紀一八三〇年)이라고 하였는데 寺院重修의 功德으로 因緣된 記刻인 듯도 하다。 實測値는 總高 一m九五 地臺石 幅 一m八三—一m六五 下蓮臺石 七三·五cm 第一層屋蓋 六五cm 第九層屋蓋 三八cm로서 遞減率이 적으나 安定感을 보이는 바 비록 完形은 아니나 稀貴한 靑石塔의 遺例로서 保存되어야 할 것이다。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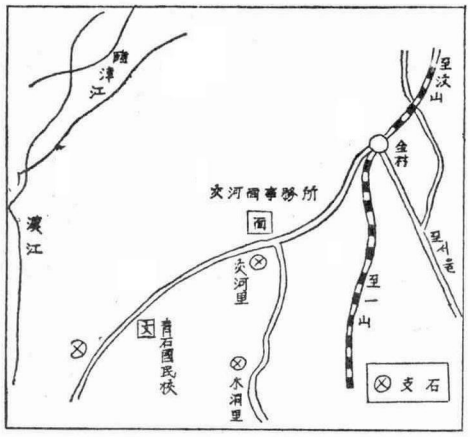
① 長項線으로 溫陽 다음인 新昌驛에서 西北方 約 十里 『생골』을 지나 靈仁山 中腹에 南向하였다。

② 金正基 : 靈山法華庵의 靑石塔(本誌 一卷 三號 一九六〇年 十月)

坡州 交河面의 支石墓

金 武 龍

坡州郡 交河面靑石 國民學校 西南方 約 二〇〇m 地點에 支石一基가 있다。 이 支石은 現在 蓋石만 露出되고 足石은 埋沒되어 있어 構造에 對하여 알지 못함은 유감이다。 蓋石最長 四·四五m 最短 三·一m 厚 六〇cm의 不定楕圓型으로 된 이 支石墓의 立地條件은 漢江沿岸 丘陵上에 있으며 方向은 南向을 取했고 型式은 南方式으로 推測된다。 또 交河里支石의 實測을 보면 蓋石 最長 三·四m 最短 二·八m 厚 五〇cm 足石은 現在一個만 倒壞되어 있으며 足石 高 七〇cm 幅 三〇cm로써 原來의 支石 高 一·二m 以上이며 方向은 大略 南向을 取하고 있으며 型式은 北方式임은 分明하다。 以上의 支石以外에 同校 崔正淳氏에 依하면 同面 木洞里와 條里面 努造里에도 各各 一基씩의 支石墓가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發見된 支石墓들은 臨津江沿岸에 分布되어 있는데 이 交河面의 支石墓는 漢江下流南岸에 있으며 坡州郡 支石墓分布上 새로운 資料라고 하겠다。



考古美術 뉴—스

◎ 義城古墳 發掘完了

國立博物館에서는 지난해 十一月末부터 慶北 義城郡 塔里 所在 三國時代 古墳에 對하여 發掘調査를 實施하여 오던 바 해를 넘겨 今年 正月 三日로서 復舊作業까지 完全히 끝마쳤다고 한다。

發見遺物로서는 從前에 볼 수 없던 特異한 形式의 金銅冠이 出土하였으며 古墳의 內部構造에도 特殊한 點이 많아 古代墓制 硏究上 도움이 될 바 적지 않다 하니 그 報告書 刊行이 크게 期待된다。

◎ 國寶石塔의 修理

昨年 十二月에 左記 京畿道所在의 國寶 三塔의 修理가 이루어졌다。

(1) 安養 中初寺三層石塔(國寶 七호) : 寺址에 工場이 設置됨에 따라서 이 石塔은 幢竿(國寶 六호) 北方으로 移建되었는데 單層基壇으로 判明되었다。 尹武炳氏 監督으로 基壇中石 一枚가 新補되었고 二、三層屋蓋는 塔身을 찾지 못한채 復元되었다。

(2) 驪州 高達寺址浮屠(十五호) : 兩次에 걸친 塔內藏置의 盜取行爲로서 傾斜된 塔基部가 復舊되었고 後面에 石築으로 土砂의 流下를 防止케 되었다。 工事時 黃壽永氏가 現場을 調査하였는데 塔前方에서 長矩形拜禮石(各面에 眼象)이 發掘되었으며 其他 八角臺石 一個와 兩石柱도 整備되었다。